



# ITU-T SG17 제네바 회의

TTA 표준화본부 본부장 **진 병 문**  
 TTA 표준화본부 정보통신팀 **오 흥 룡**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염 흥 열**  
 ETRI 정보보호기반그룹 그룹장 **정 교 일**

## 1. 회의 개요

- 회의명 : ITU-T SG17 국제표준화 회의
- 회의장소 : 스위스 제네바
- 회의기간 : 2005년 10월 5일 ~ 14일
- 회의 참석규모 : ITU-T 회원국 등 총 120여 명

## 2. 회의 주요 내용

ITU-T SG17은 ‘보안, 언어, 소프트웨어’ 분야의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보안 분야는 ITU-T LSG(Lead Study Group)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모바일보안’ 관련 2건의 국제표준(2004. 3)을 제정한바 있으며, 의장단으로 “SG17 부의장 및 WP1 의장(진병문, TTA), Q.1 라포처(강신각, ETRI), Q.8 부라포처(김학일, 인하대), Q.9 라포처(염흥열, 순천향대), Q.14 부라포처(강성원, ICU), Q.16 부라포처(천강식, 넷피아)” 6명이 활동하고 있다.

금번 SG17 회의는 지난 모스크바 회의(2005. 3. 30~4. 8) 이후, 진척된 표준화 기술들에 대해 토의하는 회의로써, 한국은 30건의 표준화 기고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연구아이템 6건에 대해 main-editor로 임명받았으며, 21건의 기술을 표준에 반영시켰으며, 9건의 기고서는 금번 제출된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표 1] 참조.



(표 1) 한국 기고서 30건 제안 및 결과(섹터기고서 4건 포함)

	기고서 명	문서번호	결과
1	Proposal about classification of authentication and key establishment model (키성립 모델과 인증 분류법에 대한 제안)	D77/Q.9	반영 (X.msec-4에 키성립 모델, TTP 모델 사용 유/무에 대해 반영됨)
2	Proposal for studying P2P network security (P2P 네트워크 보안 연구를 위한 제안)	D78/Q.9	반영 (새로운 연구아이템(X.p2p-2)으로 채택되었으며, main-editor로 나재훈 팀장이 임명됨)
3	A guideline of technical and managerial countermeasures for biometric data security (생체정보 보안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해결 방법들의 가이드라인)	D81/Q.8	반영 (X.ttp-1에 baseline 문서로 채택됨)
4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 management (정보보호 침해사고 관리)	D82/Q.7	반영 (X.1051 개정표준에 새로운 섹션으로 추가키로 함)
5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산업 연속성 관리)	D83/Q.7	
6	Contribution on the guidelin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on web (웹에서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D84/Q.9	
7	Direction of standardization on spam issues (스팸이슈들에 대한 표준화 방향 제시)	D85/Q.17	반영 (Q.17의 Action Plan 등을 수정함)
8	Proposed contents of guideline document on countering spam (스팸대응 가이드라인 표준(안) 항목 제안)	D86/Q.17	반영 (X.gcs 섹션2에 반영키로 함)
9	Necessity of separate recommendation on IP multimedia application spam (IP 멀티미디어 응용 스팸을 위한 별도의 표준(안) 작업의 필요성 제안)	D87/Q.17	반영 (e-mail 스팸대응과 IP 멀티미디어 응용스팸을 분류키로 하였으며, main-editor로 강신각 팀장이 임명됨)
10	The cryptographic authentication based on biometric information (생체정보 기반의 암호학적 인증)	D88/Q.8	채택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상세히 논의키로 함)
11	Proposal on the guideline for the architecture supporting single sign-on in mobile web environment (모바일 웹환경에서 싱글사인 지원 구조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D89/Q.9	채택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상세히 논의키로 함)
12	Access control methods for UDDI in web services using XACML (XACML을 이용한 웹서비스에서 UDDI를 위한 접근제어 방법)	D90/Q.9	채택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상세히 논의키로 함)
13	Updated framework of security technologies for home network (업데이트된 홈네트워크를 위한 보안기술 프레임워크)	D91/Q.9	반영 (first draft Recommendation 문서로 확정됨)
14	Guideline on strong password authentication protocols (강한 패스워드 인증프로토콜 가이드라인)	D92/Q.9	반영 (새로운 연구아이템(X.sap-1)으로 채택되었으며, main-editor로 염홍열 교수가 임명됨)

	기고서 명	문서번호	결과
15	Device certification profile for the home network (홈네트워크를 위한 디바이스 인증서 프로파일)	D93/Q.9	반영 (X.homesec-2에 인증서 발행 절차, 사용범위 등을 정의함)
16	A proposal for standard issue of relayed multicast security framework (중계 멀티캐스트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이슈 제안)	D94/Q.1	반영 (RMCP에 부록으로 추가됨)
17	Proposal on user authentication mechanisms for home network service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인증메커니즘 제안)	D95/Q.9	반영 (새로운 연구아이템(X.homesec-3)으로 채택되었으며, main-editor로 이형규 선임이 임명됨)
18	Proposal about method indicating available biometric for individual in multi-biometric system (다중생체 시스템에서 각각의 생체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지정 방법에 관한 제안)	D96/Q.8	반영 (새로운 연구아이템(X.ttp-2)으로 채택되었으며, main-editor로 길연희 연구원이 임명됨)
19	Security roadmap for the future mobile environment (미래 모바일 환경을 위한 보안 로드맵)	D97/Q.9	채택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함)
20	Proposal of security considerations for ubiquitous networking environment based on web services (웹서비스 기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보안 고려사항 제안)	D98/Q.9	채택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함)
21	Proposal of guideline on security architecture for message security in mobile web services (모바일 웹서비스에서의 메시지 보안을 위한 보안구조 가이드라인 제안)	D99/Q.9	채택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함)
22	Proposal of considerations for coordinated policy-based network security control management (네트워크 보안 제어 기반의 동일한 정책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제안)	D100/Q.5	반영 (새로운 연구아이템으로 선정되었으며, main-editor로 김종현 선임이 임명됨)
23	Proposal of tree management algorithm for Annex.A of RMCP-2 text (RMCP-2 부록 A를 위한 트리 관리 알고리즘 제안)	D101/Q.1	반영 (RMCP-2에 반영됨)
24	Proposed modification of RMCP-2 text (RMCP-2 문구의 수정 제안)	D102/Q.1	
25	Proposal of RMCP-3 messages and its controls (RMCP-3 메시지와 제어 방법의 제안)	D103/Q.1	반영 (RMCP-3에 반영됨)
26	Requirement of relayed multicast protocol for mobile environment (모바일 환경을 위한 중계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의 요구사항)	D104/Q.1	반영 (RMCP-2에 반영됨)
27	Basic concept of relayed multicast protocol for mobile environment (모바일 환경을 위한 중계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의 기본 개념)	D105/Q.1	
28	Proposed N-plex reliable data transfer scheme (제안된 N-plex에서의 명확한 데이터 전송 구조)	D106/Q.1	반영 (RMCP-3에 반영됨)
29	Proposal for the study on a security framework for mobile RFID applications as a new work item on mobile security (모바일보안의 새로운 연구아이템으로 모바일 RFID 응용을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연구를 위한 제안)	D116/Q.9	채택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함)



	기고서 명	문서번호	결과
30	Considerations for the guideline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for RFID (RFID를 위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위한 고려사항)	D117/Q.9	채택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상세히 논의키로 함)

## 2.1 SG17 전체(Plenary) 회의 주요내용

지난회의에서 미국, 영국 등의 반대로 보류되었던 새로운 작업반 Q.16(IDN: 국제도메인네임)과 Q.17(스팸대응)을 신설키로 합의하였으며, 차기 ITU-T SG17 회의를 2006년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한국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키로 승인하였음

## 2.2 WP1(Open Systems Technology) 회의 주요내용

### 가. Q.1(품질서비스 관리 향상을 위한 종단간 멀티캐스트 통신) 회의 결과

- Q.1은 ISO/IEC JTC1/SC6/WG7과 공동으로 회의를 하였으며, 한국에서 독자 제안한 중계방식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RMCP) 표준초안과 향상된 통신 전송 프로토콜(ECTP)에 대해 검토하였음
  - ECTP-3(X.607), ECTP-4(X.607.1), ECTP-5(X.608), ECTP-6(X.608.1)을 첫 번째 위원회 초안(CD) 투표를 진행키로 결정함
  - RMCP-2는 부록 A에 구현 방법을 업데이트 했으며, 최종위원회초안(FCD) 투표를 진행키로 결의함
  - RMCP-3은 N-plex 그룹에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술과 명확한 데이터 전송 기술을 부록 A와 B로 추가키로 함
  - RMCP 스펙에 보안 기능들을 추가키로 합의함

- 모바일/무선 환경을 고려한 종단간 멀티캐스트 전송 기술이 SC6에서 NP(신규업무항목제안)로 채택되었으며, 최종적으로 JTC1에서 채택이 되면, 향후 Q.1과 상호협력 하에 개발키로 함

### 나. Q.2(디렉토리 서비스/시스템, 공개키/속성인증서) 회의 결과

- E.115(Computerized directory assistance) 표준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이번 SG17 회의에서 승인됨
- X.500(Information technology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 The Directory: Overview of concepts, models and services) 시리즈 표준 10건의 제5판 개정이 완료되어, ITU-T에서 Last Call과 ISO/IEC에서 최종 FDIS 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2005년 버전으로 출판될 예정임
- 새로운 연구아이템으로 “통신 활용을 위한 디렉토리 규격 정의”와 “도메인간에 상호연동이 가능한 권한 관리 기반구조(PMI)”에 대해 연구키로 함
- Q.2와 ISO/IEC JTC1/SC6/WG8 간에는 NGN-Directory 관련하여, 기존에 정의되어진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정의키로 합의함

다. Q.3(개방형 시스템 상호연동)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

라. New Q.16(국제도메인네임) 회의 결과

- Q.16은 WTSA-2004 Resolution 48의 권고사항과 관련되며, 이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신설키로 합의됨에 따라, 제안된 Q.16에 대한 설명(scope, motivation, tasks 등) 문서를 작성하여, SG2와 TSAG에 송부키로 함
- Q.16 참가자들은 회의 안내장(circular letter)에 Q.16에서 개발코자하는 기본 항목들에 대해 각 국가별로 설문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함
- 러시아는 Q.16에 “Cyrillic script” 러시아 도메인 방식을 포함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한국은 “국제도메인네임”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제기함

### 2.3 WP2(Telecommunication Security) 회의 주요내용

가. Q.4(통신시스템 보안 프로젝트) 회의 결과

- 이번 회의에서 “정보보호 로드맵 version 1”이 완성되었으며, 2006년 초에 NGN 데이터베이스(자료) 관련하여, 각각의 표준화 기구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배포할 예정임
- “네트워크 운영자를 위한 보안 기본 표준”에 대해 연구할 신규 Focus Group을 만들기로 합의하였으며, Mr. Kremer가 의장으로 임명되었고, Mr. Harrop이 2006년 4월까지 부의장으로 활동키로 함

○ 보안 요약사항 및 보안 메뉴얼은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은 없고, 계속 검토키로 함

○ 개발도상국(카메룬 등) 및 경제 변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국제표준화 참여를 유도키 위하여 계속해서 Mr. Nlend가 e-mail로 활동키로 함

나. Q.5(보안 구조 및 프레임워크) 회의 결과

- X.805 기반으로 네트워크 보안 인증서를 위해 요구되는 방법론, 처리과정, 제어방법 등을 다룰 표준을 개발키로 함(D70)
-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정책들을 향상하거나 생성, 저장, 분배하는 방법들을 다룰 표준(D100)으로 개발키로 하였으며, main-editor로 김종현 선임(ETRI)이 임명됨
- X.805 기본 개념을 응용하여, 네트워크와 사용자간에 보안 특징들을 분류하는 표준을 개발키로 함(D120)
- Q.6과 Q.7 공동으로 NGN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FGNGN과 SG13에서 추진중에 있는 “NGN을 위한 보안요구사항”, “NGN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들에 대해 계속해서 liaison으로 연락키로 함

다. Q.6(사이버 보안) 회의 결과

-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본 개요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사이버 보안에서 다루어야 할 연구 아이টে들을 정의키로 함
- Q.6에서 다루기로 한 “Spyware, Deceptive Software” 관련하여,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스파이웨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ISP를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을 개발키로 함



- E.409(Incident organization and security incident handling: Guidelines for telecommunication organizations) 표준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인터넷 침해사건에 대한 취약점 분석, 사후처리, 피해보고,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으며, 차기회의에 정확한 연구범위와 항목들을 정의하기로 함

### 라. Q.7(보안 관리) 회의 결과

- X.1051(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s(ISMS-T) 표준 개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려하기로 함
  - ISO/IEC 17799 표준과 가능한 동일하게 개정하기로 함
  - 정보통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써, 가능한 구현 가이드를 포함하기로 함
  - 본 표준안은 ITU-T의 다른 표준들과 상호연계가 되어야 함
- X.1051 표준 제목을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guidelines for telecommunication based on ISO/IEC 17799”로 변경키로 하였으며, 한국에서 제안한 “정보보호 침해사고 관리”와 “산업 연속성 관리”를 새로운 섹션으로 추가하기로 함
- SG2와 TSAG에서의 liaison 문서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검토 관련하여, SG17에서 제정한 X.1051, X.805, E.409 등이 활용 가능할 것을 검토됨

### 마. Q.8(생체인식) 회의 결과

- TMMF(Telebiometrics Multimodal Model Framework) 검토 결과

-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위한 생체정보 지침서 소책자를 영문 버전으로 출판함
- 분산형 정보공유(Threshold Information)를 위한 표준(안) X.physiol을 추진함에 따라, 가능한 생체정보 디바이스들의 모든 타입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함

- TSM(Telebiometrics System Mechanism) 검토 결과

- ASN.1 인증서 형식 관련된 코멘트들을 반영하여, X.tsm을 first draft recommendation으로 추진키로 함

- TPP(Telebiometrics Protection Procedures) 검토 결과

- 생체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차원에서의 해결방법과 관리차원에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MUST, SHOULD, MIGHT 등으로 중요성을 분류함
- X.tpp-1의 제목을 “A Guideline of Technical and Managerial Countermeasures for Biometric Data Security”으로 변경키로 함
- X.tpp-1을 2Q/2006에 first draft recommendation으로 추진키로 함

- 한국에서 제안한 “다중생체정보 보호 절차(X.tpp-2)” 검토 결과

- 생체정보 시스템에서 다중 생체정보가 이용되었을 때, 필요한 보안대책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다중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음
- main-editor로 길연희 연구원(ETRI)이 임명되고, co-editor로 정연수 선임(ETRI)이 임명됨

- 한국에서 제안한 “생체정보 기반의 암호학적 인증” 검토 결과

-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다르게 만들어진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동일한 서명기를 만들어지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생체정보 인증 인프라(X.tai) 검토 결과(D111, 112, 115)
  - 생체정보 데이터나 템플릿에서 생체정보 고유 ID를 추출하여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함
  - 사용자 인증에서 사용되는 권한 관리 기반구조 (PMI: Privilege Management Infrastructure) 는 100% 인증이 가능하지만, 생체정보를 이용할 경우 이를 보장하지 못함
  - 따라서, PMI를 사용하는 제3의 신뢰모델(TTP: Third Trust Model)에 정확한 파라미터가 사용되어야 하며, 생체정보 알고리즘 인증서가 사용되거나, X.509의 PMI가 응용되어야 함
  - 결과적으로, 생체정보 인증 인프라를 새롭게 연구기로 합의하였으며, main-editor로 Dr.Wei (중국)가 임명됨

## 바. Q.9(모바일 보안) 회의 결과

- 홈네트워크 보안 이슈 검토
  - 지난 중국 미팅이후, SG9의 표준 J.190과 J.192를 반영하여 제안한 “D91: Updated framework of security technologies for home network(X.homesec-1)” 기고서는 부록의 홈디바이스 분류방법을 J.192 방법과 UPnP 방법으로 분류기로 하였으며, 본 기고서를 first draft recommendation으로 채택기로 함
  - 한국에서 제안한 “D93: Device certificate profile for the home network(X.homesec-2)” 기고서는 정확한 연구범위 정의와 디바이스 인증서를 XML로 표현하는 방법, 디바이스 인증서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기로 함
  - 한국에서 제안한 “D95: User authentication mechanisms for home network” 기고서는 홈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향후 연구아이템 중 하나로 홈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 및 디바이스들을 인증하려 하고 있음. 본 기고서를

X.homesec-3으로 채택하고, main-editor로 이형규 선임(ETRI)을 임명함

- 모바일 보안 이슈 검토
  - 중국에서 제안한 모바일 보안정책(X.msec-3) 관련 D110, WD4 기고서는 3GPP에서 검토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차기 2006년도 4월 제주도 미팅에서 first draft recommendation을 만들기로 함
  - 중국에서 제안한 상호연동 가능한 시스템 (X.crs) 관련 D118 기고서는 각 개체간에 정보 교환을 위해 XML을 사용하는 방법과 암호화하는 방법, 다양한 전송 모델, 이때 사용되는 응용 프로토콜들을 추가하여 차기회의에서 재검토기로 하였으며, co-editor로 Mr. Jiwei Wei를 임명함
  - 중국에서 제안한 모바일 보안을 위한 인증 구조 (X.msec-4) 검토결과
    - 인증 및 키성립 모델(D77) 기고서는 키성립 절차와 X.msec-4의 다양한 인증 모델(TTP 모델을 사용할때와 사용하지 않을때)을 추가하여 차기회의에서 재검토기로 하였으며, X.msec-4의 co-editor로 Mr. Jiwei Wei를 임명함
    - 인증구조(D113, 114) 기고서는 로밍과 관련된 이슈들, 인증메커니즘에서 필요한 보안요구사항들, X.msec-4에서의 중재모델(mediation)과 커버러스모델(Kerberos) 등을 고려하여 차기회의 재검토기로 함
  - 한국에서 제안한 “모바일 RFID(D116(WD3), 117)”는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확한 연구범위를 정의하여,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Q.9의 새로운 연구아이템 선정에 대해 검토기로 함
  - 한국에서 제안한 “모바일 환경을 위한 보안 로드맵(D97)”은 CDMA, WLAN, 3GPP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기로 함



○ 안전한 응용서비스

- 일본에서 제안한 “P2P 보안(D74)”은 P2P 환경에서의 위협요소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Q.9에서는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P2P 보안 요구사항(X.p2p-1)” 표준을 개발기로 하고, main-editor로 Mr. Y.Miyake를 임명함
- 한국에서 제안한 “P2P 보안 연구의 필요성 제안(D78)”은 IEEE802.11i의 활동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Q.9에서는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P2P 보안 세부기술(X.p2p-2)” 표준을 개발기로 하고, main-editor로 이재훈 팀장(ETRI)이 임명됨
- 한국에서 제안한 “강한 패스워드 인증프로토콜을 위한 가이드라인(D92)”은 인증기반의 시도-응답(challenge-response)과 강한 패스워드 인증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개발기로 하였으며, X.sap-1의 main-editor로 염홍열 교수(순천향대)가 임명됨
- 일본에서 제안한 “제3의 신뢰모델(TTP)을 이용한 안전한 통신(D75)”은 구현 가능한 위치와 제안된 프로토콜의 응용영역 등을 고려하여, Q.9의 새로운 연구아이템으로 개발기로 하였으며, X.sap-2의 main-editor를 Mr. T. Kaji로 임명함

○ 웹서비스 보안

- 한국에서 제안한 “웹서비스 기반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보안 고려사항(D98)”은 Q.9의 연구범위 웹서비스 보안과 유비쿼터스 환경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Q.9에서는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아이템 선정에 대해 차기회의에서 재검토기로 함
- 한국에서 제안한 “웹에서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D84)”은 W3C의 개인정보플랫폼(P3P: 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과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본 기고서의 목적 및 Q.7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개발이 필요하며, 본 기고

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재검토기로 함

- 한국에서 제안한 “모바일 웹환경에서의 싱글사이온(Single Sign-On) 지원 구조를 위한 가이드라인(D89)”은 SAML을 이용한 좋은 시나리오 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표준화 기구에서 연구되고 있는 활동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재검토기로 함
- 한국에서 제안한 “XACML을 이용한 웹서비스에서의 UDDI를 위한 접근제어 방법을 위한 가이드라인(D90)”은 XACML을 이용한 좋은 시나리오 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XACML을 위한 개인 URL 할당방법과 모바일 웹보안을 위한 네임 스페이스 할당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재검토기로 함
- 한국에서 제안한 “모바일 웹환경에서의 메시지 보안을 위한 보안구조 가이드라인(D99)”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본 기고서를 기반으로 차기회의에서 재검토기로 함
  - 본 기고서는 코어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근을 위해 Parlay-X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있어, Parlay\* 작업과는 차이가 있음  
(\*모바일 환경에서 applications과 telecommunication 기능 간에 상호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 이중 인증방식, AAA 서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야 함

○ OASIS의 SAML과 XACML 보안

- ITU-T 표준을 위해 SAML과 XACML을 사용되는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함
- 네임 스페이스 등을 유지하기 위한 웹 페이지가 필요하지에 대하여 검토기로 함
- OASIS와 Q.9 과 긴밀한 협조하에 표준을 개발기로 함
- ITU-T 입장에서 표준을 검토하고, ITU-T와 OASIS 간의 표준 일치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함
- Q.9에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소규모 기술 그



를 구성함

- Mr. A.Barbir, Mr. H.Y.Youm, Mr. J.S.Lee, Mr. T.Kaji
- SAML(X.websec-1), XACML(X.websec-2)을 2Q/2006에 AAP 상정키로 함

## 사. New Q.17(스팸 대응) 회의 결과

- 제안된 Q.17에 대한 설명(scope, motivation, tasks 등) 문서와 Action Plan을 “기술적 방법에 의해 스팸대응”을 하여야 함으로 수정함
- e-mail 스팸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X.gcs) 검토 결과
  - 스팸대응 방법으로, 기술적인 방법, 법률적인 방법, 국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연구범위를 명확히 함
  - 한국에서 제안한 D86의 항목들을 X.gcs의 섹션 2에 삽입하기로 함
  - 한국에서 제안한 D87에 따라, “IP 멀티미디어 응용 스팸” 표준을 개발키로 하였으며, main-editor에 강신각 팀장(ETRI)을 임명함
  - Q.17에서 추진되고 있는 표준초안(X.gcs)을 “IP 멀티미디어 응용 스팸”과 “e-mail 스팸”으로 분류함에 따라, X.gcs와 X.fcs의 표준명을 수정키로 함
    - X.gcs : Guideline document on Countering email SPAM
    - X.fcs : Technical Framework for Countering email SPAM
- e-mail 스팸대응을 위한 기술적 프레임워크(X.fcs) 검토 결과
  - 스팸처리를 위한 기본구조에서 일반적인 구조 (figure 1)와 레퍼런스 모델(figure 2)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추가적인 기고서를 받아 수정키로 함

- 새로운 연구아이템으로 “스팸대응을 위한 요구사항”을 만들기로 함

## 아. 차기 WP2 Interim 미팅

- Q.4, 6, 8을 제외한 Q.5, 7, 9, 17의 interim 회의를 2006.1.16~20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키로 함

## 2.4 WP3(Language and Telecommunication Software) 회의 주요 내용

### 가. Q.10(ASN.1과 기타 언어) 회의 결과

- SG17에서는 ISO, IEC, ITU-T, UNECE 및 다른 표준화 기구와의 MoU MG(Management Group)과의 협의를 위한 대표로 Mr. John Larmoth와 Mr. M Oliver Dubuisson을 임명함
- SG17 웹페이지에 객체식별자(OID: Object Identifier) 할당 등록을 위한 페이지를 만들기로 함
- OID 계층화 확장 연구를 위한 OHN(Object Hierarchical Names)을 Action Plan에 추가키로 함

### 나. Q.11(언어 스펙과 구현) 회의 결과

- Q.13과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Z.100~Z.107까지의 현 상태 및 향후 개정방향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Z.109는 Q.13과 공동으로 개정하기로 함



- Z.100은 SDL(Specification and Description Language)을 위한 UML 프로파일과 UML2의 조율 결과를 반영키로 함
- Z.130(eODL: Extended Object Definition Language) 표준안은 ITU-T 멤버들과 산업체에 필요한 표준으로 재평가하여 개정키로 하였으며, 차기회의에서 eODL과 UML의 공통사항들을 비교 검토키로 함

#### 다. Q.12(언어 요구사항) 회의 결과

- 이번회의에는 제출된 기고서가 없었으며, Z.151과 Z.152를 지원하기 위한 메타 모델(metamodel)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음

#### 라. Q.13(시스템 설계 언어 프레임워크와 단일화된 모델링 언어) 회의 결과

- Z.109(SDL combined with UML) 표준을 유지보수(TD3077R2) 하였으며, 2006년 4월전에 "Consent"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예정
- Z.111(Notations to Define ITU-T Language - Z.ngl)과 Z.119(Guidelines for UML Profile Design - Z.gup)은 Z.110의 응용 부분을 포함하기로 합의함

#### 마. Q.14(언어 평가, 방법론, 프레임워크) 회의 결과

- 한국과 ETSI은 표준안 "Z.itfm: Interoperability testing framework and methodology"에 대해 단일 표준으로 추진키로 합의한바, 모스크바 회의에서 검토하였으나, ETSI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번 회의에서 Z.itfm는 검토되지 않았으며, 현재 ETSI에서 IOP 관련하여 본 이슈를 검토할 새로운 특별작업반이 창설되었음

#### 바. Q.15(개방형 분산 처리) 회의 결과

- X.901-904, X.911, X.952 표준안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하여 검토됨
- X.906(Information technology - Open Distributed Processing - Use of UML for ODP system specifications | ISO/IEC 19793) 표준안에 대해, ISO/IEC JTC1/SC7에 검토 의뢰한 결과, X.119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는 회신이 왔음

#### 사. 차기 WP3 Interim 미팅

- Q.11(SDL)은 2005. 12월 중순에 전자회의로 개최키로 함
- Q.11(eODL)은, 2006. 2. 9일에 베를린에서 개최키로 함
- Q.11, 13은, 2006. 1월 ~2월 사이에서 제네바에서 개최키로 함
- Q.11(SDL)은 2006. 3월 독일의 Kaiserslautern 대학에서 개최키로 함

### 3. 관찰 및 의견

이번 ITU-T SG17 회의에서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참가자와 많은 기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표준

에 국내 기술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올렸으며, 국제표준을 좀더 주도하기 위하여, 차기회의(2006. 4. 19~28)를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미국, 영국 등의 반대로 보류되었던 새로운 Question 16, 17의 신설이 확정되었으며, Q.16 연구영역에 다국어(Multi-lingual) 표준을 연구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 네티피아의 자국어인터넷주소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SG17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입지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내 산업계에도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SG17에서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보안 분야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슈화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보안, XML 보안, 스팸대응, P2P 보안 등에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TA**